

# 背子の樣式變遷에 관한 考察\*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박 두 이

目 次	
I. 序 論	2. 우리나라의 背子
II. 背子の 樣式變遷	III. 中國背子和 우리나라 背子와의 關係
1. 中國의 背子	IV. 結 論

## I. 序 論

服飾의 變遷을 다룬다는 것은 服飾의 시대적인 흐름을 서술하는 것이 되겠고, 服飾變遷의 내용은 服飾의 形質的인 變化 이외에 服飾에 대한 價値觀의 變化도 포함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服飾의 變遷에 관한 考察에는 變遷要因(自然環境的인 要因과 社會環境的인 要因)의 分析이 있어야 하겠고 그 要因이나 變遷의 過程중에 어떠한 原理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야 할 것이다.

本 考에서는 朝鮮王朝 後期和 末期에 男女 모두에 의해 平常服으로 착용되어진 無袖對襟의 短上衣인 背子에 대한 樣式變遷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韓國의 基本服飾중, 上衣인 襦와 袍는 直領交任의 左任型(前開形-Kaftan)인데 반하여, 背子는 前開形으로 옷깃이 對襟이어서 여범부분이 겹쳐지지 않는다. 그 基本形은 貫頭衣形(Pancho)일 것으로 보이며 三國時代 以前부터 着用되어져 왔다고 본다. 王字淸이 말한 套衫式 중, 앞트윈이 없어 입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끼 입는 형태<sup>2)</sup>의 것이다. 이것이 반비의 양식으로 변화하였다고 思慮되나 정확히 어떤 時期에 또 어떤 契機로 해서 이 衣服이 前開形(Kaftan)으로 變化하였는 지에 대한 資料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衣服의 發生, 變

遷過程을 上告해 보면 前開形의 衣服이 貫頭衣形의 衣服類型(Type of costume)에서 派生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타당한 假定이라 여겨진다.

이에 本 研究에서는 無袖對襟의 衣服形態를 지니고 있는 여러 衣服들을 研究對象으로 하여, 특히 이러한 衣服의 形質的인 變化가 衣服名稱의 分化和 함께 어떻게 變遷하여 갔는지에 대하여 中國의 것과 比較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變遷에 작용한 要因이나 原理를 分析하는 것과 衣服類型의 變化에 관한 것은 앞으로 研究되어져야 하는 課題임을 밝혀 둔다.

## II. 背子の 樣式變遷

### 1. 中國의 背子

宋代의 事物紀原 衣裘帶服部 半臂條에 「隋代 長袖의 半臂를 唐高祖가 소매를 마저 없었는데 宋代에서는 背子라 하고 江謂之間에서는 或 綽子라고 하여 士人들이 다투어 입는 의복<sup>3)</sup>」으로 背子が 唐代의 소매가 없는 半臂임을 설명하고 있다. 後漢書 光武紀에 「모든 上衣 위에 繡鬚을 입으며 그것은 지금의 半臂와 같다」는 기록을 볼 때, 繡鬚이 半臂, 背子, 綽子와 같은 의복임을 알 수 있다.

隋代와 唐代初葉의 婦女服飾은 小袖의 짧은 저

\*본 논문은 1987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보완·수정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1) 小川安朗, 服飾變遷의 原則, 東京文化出版會, 昭和五六年,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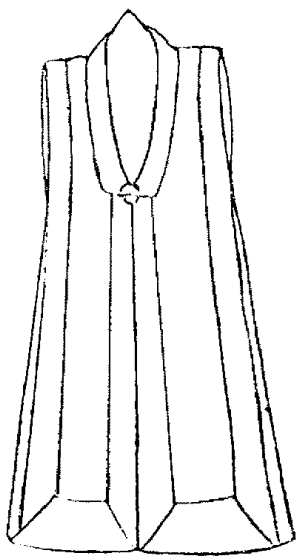
2) 王宇淸, 中華服飾圖錄, 世界地理叢書, 中華民國73年, p.96.

3) 者橋徹次, 大漢和辭典, 卷9, (東京:大修書店), 昭和43年, pp.1628~1629.

4) 者橋徹次, 前掲書, 卷2, p.1628. 後漢書, 光武紀, 服, 婦人衣者于繡鬚注: 即是諸士上加繡鬚女今之半臂也.

고리와 긴치마 그리고 半臂을 위주로 하여 착용하였으며 裙帶를 거드랑이 아래에다 묶어서 늘어뜨렸다.

· 唐代의 半臂는 「實錄에 기록된 바로는 隋나라 大業중에 內官들이 半臂를 많이 입었는데, 그것은 긴소매를 조금 자른 半袖形態의 半臂이고, 唐高祖가 그 소매를 마저 없애고 半臂라 稱하였다.」<sup>5)</sup> 그 형태(도1)는 소매가 없고 옷깃은 對襟이며 여밈장식이 있다. 양옆은 거드랑이 이하 밑단까지 터져 있고 가장자리에는 모두 단(襖)이 달려져 있다.



〈도 1〉 半臂(王圻, 三才圖會, p.1546)

착상형태는 도1의 半臂를 窄袖의 襦위에 加服하였으며 그 위로 裙을 덧 입고 있음이 唐李爽妙壁畫玄室東壁侍女의 모습에서와 同阿彌陀如來圖像<sup>6)</sup>, 唐 三彩圖俑<sup>7)</sup>, 唐 阿史那忠墓壁畫女官(도2), 敦煌壁畫의 壞夫人行番圖<sup>8)</sup>의 모습에서 확인 되었다. 7~8세기의 日本 奈良朝의 女人像(도3)에서도 볼 수 있다. 王宇清은 이상의 것을 ‘套衫式 半臂’라 하고, 이러한 앞트임이 없는 半臂를 입을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끼 입고 치마를 그 위로 입고 裙



〈도 2〉 女官(唐 阿史那忠墓壁畫)



〈도 3〉 奈良 法隆寺女人像(李京子, 韓國服飾史論, p.31)

帶를 늘어뜨렸다. 半臂의 목 둘레가 넓어서 裄이 가슴위로 드러나는 現像을 볼 수 있으며 또한 半臂

5) 王宇清, 前揭書, p.85.

6) 王圻, 三才圖會, 四, (台北: 成文出版社, 修正本), 1970, p.1546.

7)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 第三編, (東京: 東洋文庫), 昭和45年, 圖12, 圖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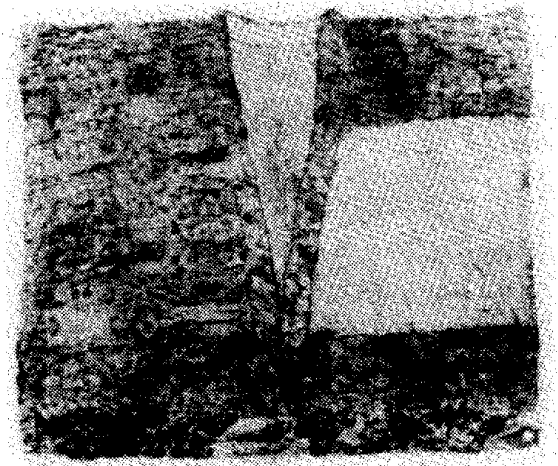
8) 沈從文, 前揭書, p.215.

9) 沈從文, 前揭書, p.221.

의 下擺를 길으로 내어서 입을 수 있다고 한다.<sup>10)</sup> 半臂의 아랫자락을 길으로 내어서 착용한 모습은 北朝繪彩舞女(도4)와 日本 正倉院의 東大寺 大公開腹會 當일에 행하여진 樂舞들의 衣裳인 吳女背子(도5)가 있다. 이들은 上衣와 치마위로 着用하였는데, 이는 일반 부녀자와 舞姬들의 착장형식이 달랐음이 아닌가 한다. 또한 도4와 도5 사이에서도 길이의 차가 발견된다.



<도 4> 北朝繪彩舞女(中華古代陶俑)



<도 5> 吳女背子(町野とく, 正倉院物枝樂裝の復原的研究)

그러나 唐書 玄宗皇后傳에 보이는 「紫半臂」<sup>11)</sup>는 唐書 및 舊唐書與服志에 설명되어진 女史들이 供奉을 할때 입은 半袖<sup>12)</sup>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것은 三才圖會의 설명 중에 보이는 소매를 없애기 전의, 긴소매를 조금 자른 半袖형태의 半袖로 指稱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 形態는 永太公主墓의 北面의 侍女와(도 6) 前室東壁南半部 婦人像<sup>13)</sup>에서 볼수 있다.



<도 6> 永太公主墓北面侍女(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p.206)

三才圖會의 半臂條에 의하면 男子도 半臂를 着用하였는데, 이는 敦煌323窟壁畫의 唐代的 船夫의 모습(도7)에서 확인 되었다. 斗笠을 쓰고 小袖의 短衣와 長庫을 입었으며 그위에 半臂를 着用하고 束要帶를 한 모습이다.<sup>14)</sup> 그러므로 당대의 반비는 남녀가 같이 착용한 의복임을 알수있다.

唐代的 소매 없는 半臂는 宋代에 背子 또는 綽子라고 불리워졌으며, 綽子는 後代에 搭護, 背搭, 馬甲, 坎肩 등의 異名을 지니는 衣服으로, 이들의 特徵은 소매(袂, 袖)가 없는 것이다.<sup>15)</sup> 王宇清은 이점에 대해 宋代의 半臂와 背心의 樣式은 基本的

10) 王宇清, 中華服飾圖錄, p.96.

11) 宋島頌正, “正倉院の衣服について”, 書陵部紀要第22號勃刷,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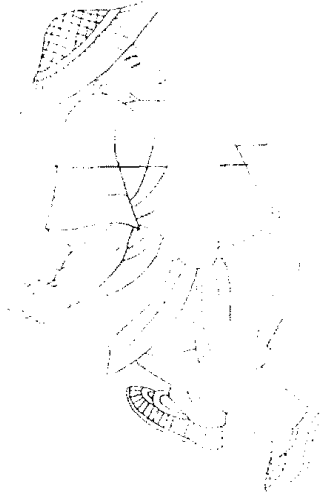
12) 者橋徹次, 前掲書, 卷2, p.1629.

13) 唐書, 舊唐書與服志: 公服者常供奉之服也. 亦如之半袖裙儒者東宮女史供奉之服也.

14) 沈從文(編),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p.119.

15)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p.175.

16)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p.89.



〈도 7〉 敦煌323窟壁畫의 般夫(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p.175)

으로 비슷하며 兩者가 모두 對襟으로 一般 婦女子들의 服飾이라 한다. 다만 半臂는 소매가 있으나背心은 소매가 없는 점이 兩者의 差異點이고, 이는 唐代的 半臂形態가背心은 소매가 없는 점이 兩者의 差異點이고, 이는 唐代的 半臂形態가背心으로 이어지고 宋代的 半臂는 소매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見解이다.<sup>17)</sup>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宋代的 半臂는 소매가 半袖인 것이며 소매가 없는 것은 背子로 분리되지게 되었음을 알수 있다.

蒙古族이 中國을 占領한 以後에도 唐代的 半臂는 漢族에 의해서 着用되었다. 明나라 衣服의 基本樣式은 唐·宋의 것을 模倣하였고 대체로 모두가 右衽을 써서 漢族의 習俗을 回復한 것이었다. 明代 婦女子들의 옷은 唐代的 半臂樣式을 이은 背子와 比甲이 있다. 比甲(도8)은 소매가 없는 의복으로 對襟이며 그 길이는 뒤에 나온 馬甲보다 다소 길다. 明代 中葉에 이르러 婦女子들이 比甲을 입는 것이 한때 大流行하였으며 특히 젊은 婦女子들 사이에 크게 인기가 있었다.<sup>18)</sup> 이들은 단호,背心이라고도 하며 宋代的 褙子와 같이 소매가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길이는 허리까지 오는 것, 무릎까지 오는 것, 무릎을 지나는 것으로 多樣性을 보인다.<sup>19)</sup> 또한 明末傾, 갑옷 위에 걸치는 망토



〈도 8〉 比甲 着用 婦女(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p.416)

모양의 罩甲(도9)이라는 의복이 있는데, 이는 武官들 사이에서 유행한 의복으로 騎兵, 武兵에 상관없이 착용되었으며, 모두가 對襟(合衽)이다.<sup>20)</sup>



〈도 9〉 卓甲을 着用한 將士(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p.418)

17) 王宇清, 中國服飾圖錄, p.104.

18) 王宇清, 中國服飾圖錄, p.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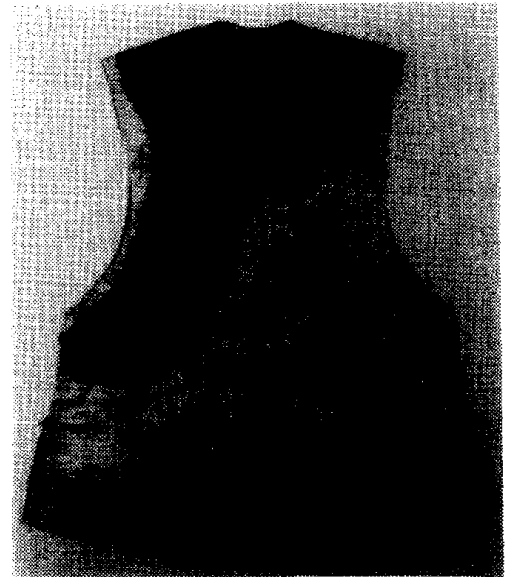
19)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p.89.

20) 金正子, "韓國軍服의 變遷研究", 대한 가정학회지24(4), p.35.

이것으로 보아 唐代의 半臂는 宋·明代에는 부녀복의 배자·비갑으로, 軍士服인 搭護와 罩甲으로 그 양식이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清釋類服飾 半臂條에 「漢나라 때는 繡鬘<sup>21)</sup>이라 하고 오늘날에는 坎肩, 馬甲이라 불리우기도하며 衣 위에 착용하는 조끼같은 형태이다.<sup>22)</sup> 清代의 婦女子들은 袍위에 背子(背心)을 더 입었는데 이 옷은 卑賤子의 것<sup>23)</sup>으로 下級子의 私居服 및 便服으로 着用되었다. 背心과 그 形態가 같은 掛는<sup>24)</sup> 清나라 后婦의 朝服으로 着用될 때에는 앞이 트인 對襟으로 길이는 袍와 나란하고 婦女의 常服으로 着用될 때에는 길이가 臂部線까지 내려오는 것이다.<sup>25)</sup> 또한 清代 皇帝 官服의 瑞罩(掛)는 겨울용 의복으로 검은 여우가죽이나 돼지가죽을 사용하며 대개 明黃緞으로 안을 넣고, 文武官服 중 朝服의 袍의 補服인 瑞罩는 青色 여우가죽이나 紫色의 돼지가죽에 白緞으로 안을 넣고 文三品, 武二品이 상은 여우 가죽에 藍色의 緞으로 안을 넣어 着用하였다.<sup>26)</sup>

心과 같은 樣式을 지니는 掛는 后婦와 婦女의 常服 및 皇帝, 官吏服으로 着用되었다. 그러므로 中國의 背子는 無袖對襟인 形態는 변함이 없는 樣式



<도 10> 背心(何活天, 中國袍服織繡選, p.62)

<표 1> 中國 背子의 時代別 名稱分化

時 代	漢 代	唐 代	宋 代	明 代	清 代
衣 服 名	繡鬘	半袖, 半臂	半臂, 背子, 綽子	背子, 比甲, 罩甲, 搭護, 背心	坎肩, 背心, 搭護, 背搭, 馬甲, 背子, 掛(端罩)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無袖對襟의 背子라는 衣服 名稱은 宋代에 가서야 나타난다. 이는 漢代의 繡鬘로 唐代에서는 남녀 모두가 착용하였고 半臂라 指稱되었다. 반면 隋나라 內官들이 착용한 반 소매 형태의 半臂는 唐代의 半袖이고 宋代에는 半臂라 불리워지게 되었다. 宋代의 背子는 明代의 背子·比甲과 같이 주로 婦女의 服裝이었으며 明末頃の 罩甲과 搭護라는 軍事服에도 영향을 주었다. 清代의 背子(背心)는 卑賤者의 常服이고, 背

의 傳承이나 그 衣服 名稱의 變化(표1참조)와 길이에 있어서는 多樣性(도1~5, 7~10참조)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三才圖會에 記錄되어진 「秦二世가 詔書하여 衫子위에 朝服으로 褙子를 加服하게 하니, 길이는 袴과 가지런하고 소매는 袴보다 짧으나 大袖」인 褙子<sup>27)</sup>(도11)와의 關係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褙子는 이미 漢나라 以前의 秦二世(胡亥, 209-207)가 詔書한 朝服<sup>28)</sup>이고 唐·宋代의 大袖

21) 王宇清, 前掲書, p.89.

22) 者橋徹次, 前掲書, p.9626.

23) 王宇清, 前掲書, p.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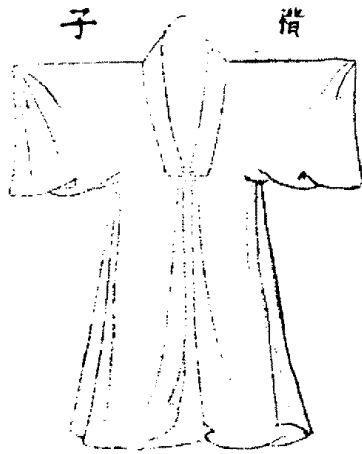
24) 王宇清, 前掲書, p.119.

25) 王宇清, 前掲書, p.216.

26) 王宇清, 前掲書, p.222.

27) 王宇清, 前掲書, p.172.

28) 王圻, 前掲書, p.1546.



〈도 11〉 襜褕(王圻, 三才圖會, p.1546)

襜褕는 凶禮時 庶人喪儀 중 復衣의 하나로 婦人들이 着用하였으며<sup>29)</sup> 宋代에는 裙의 길이와 가지런하고 소매는 衫보다 조금 넓어져<sup>30)</sup> 너그러운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宋代 王后의 常服이면서 아래로는 奴婢, 侍從, 優伶(俳優)과 樂人에 이르기까지 婦女子들이 常用한 便服이요 外衣이다.<sup>31)</sup> 淳熙(1174-1189)年間 朱熹가 정한 祭禮冠婚服중 女子在室子 및 衆妾의 의복에 襜褕가 보이며<sup>32)</sup>, 그 服制는 對襟이다. 옷의 길이는 대부분 무릎 아래까지 닿으며 어떤 것은 치마와 가지런하다. 또한 양 옆트임의 길이는 대부분 兩尺(두자) 이상이 된다.<sup>33)</sup> 明代의 命婦의 禮服과 常服으로 착용되어온 襜褕는 霞陂와 같이 일률적으로 진한 黃色만 쓰고 있다.<sup>34)</sup> 또한 大明會典에는 皇妃에서 士庶妻까지 襜褕를 착용하고 있음이 고찰되었다.<sup>35)</sup> 이는 被風이라고도 하며<sup>36)</sup> 長袖對襟衣<sup>37)</sup>로 앞길이는 땅과 가

지런하고 뒤는 五村 남짓 땅에 끌리고 있는 점이 宋代의 것과 다르다고 하겠다.<sup>38)</su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長袖襜褕와 無袖背子가 背子로 같이 불리워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背子

### 1). 三國時代

無袖對襟의 短上衣인 背子の 原形을 貫頭衣型으로 보고 있으나 現在까지의 資料에 의하면 無袖의 前開形 衣服이다. 三室塚壁畫(도12)의 貴族 長年 男子는 白羅冠에 靴를 신고 襦와 袴 위에 背子



〈도 12〉 三室塚壁畫(高句麗文化展)

29) 王宇清, 中華服裝史綱, p.90: 王宇清은 襜褕가 秦나라때 처음 생긴 衣服이라 한다.

30) 大明集禮 三十七, 凶禮三: 唐宋代庶人喪儀中伏衣: 唐宋代伏者一人用死者之上服家禮男子欄衫早衫 婦人大袖背子.

31) 者橋轍次, 前掲書, p.9629.

32) 王宇清, 中華服飾圖錄, p.104.

33) 宋史與服志 卷106, 女服五諸臣服 士庶人服: 淳熙中朱熹又定祭祀冠之服. 女子在室者冠子背子 衆妾則假假背子.

34) 王宇清, 前掲書, p.127.

35) 王宇清, 前掲書, p.155.

36) 大明集禮, 卷二十九, 六十, 六十一.(朴豆伊, 背子の 樣式變遷에 관한 考察,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7, pp.17~18, 표1참조)

37) 王圻, 前掲書, p.1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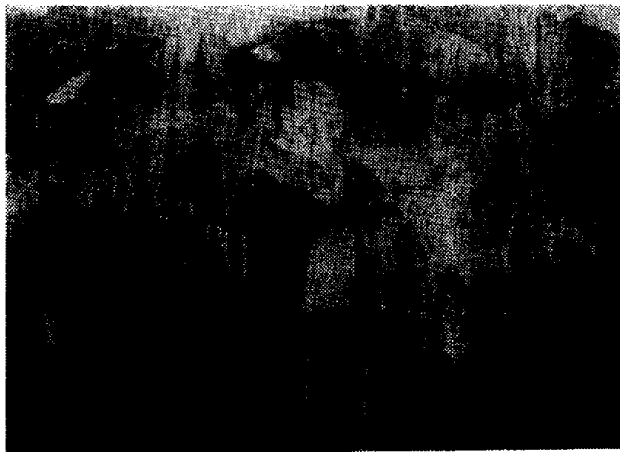
38)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p.90.

39) 王宇清, 前掲書, p.90, 中國服飾圖錄, p.139.

를 着用하고 있는데 그 길이는 (도7)의 唐代 男子가 着用한 半臂와 유사하다. 舞踊塚壁畫(도13)의 彈琴하는 모습에서는 襦와 裳위로 背子を 着用하고 있으며 安岳三號墳(도14)<sup>40)</sup>의 塚主婦人과 侍女들은 右衽直領인 半臂를 着用하고 있다.



<도 13> 舞踊塚壁畫(高句麗文化展)



<도 14> 安岳3號墳의 塚主婦人像(高句麗文化展)

### 2) 統一新羅時代

統一新羅時代의 半臂를 착용한 모습이나 遺物은 갖지 못하였으나, 新羅가 唐의 服色을 受用하여 착용한 점과 龍江同古墳에서 출토된 俑이 團領을 착용하고 있는 점, 當詩 中國과 日本에서 窄袖의 襦위에 半臂를 착용하고 그 위에 裙을 착용하는 窄裝 형식이 유행한 점, 興德王 服飾禁制<sup>41)</sup>에 보이는 半臂가 男女 모두에게 禁制事項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統一新羅時代의 半臂도 唐 半臂(도1)와 같이 無袖對襟이면서 양옆에 트임이 있는 의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柳喜卿은 興德王 服飾禁制에 같이 기록된 襟當을 半臂와는 달리 소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sup>42)</sup>, 金東旭은 「襟當은 背子이니 中國製로서, 唐의 半臂, 日本 女官의 服飾에 나오는 背子が 그것이다」<sup>43)</sup>라고 하여 柳喜卿과 같이 襟當을 소매 없는 의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襟當을 唐代의 女史들이 供奉시 착용한, 짧은 소매가 있고 길이가 허리 정도오는 '半袖'와 유사한 樣式을 지니는 外衣라고 생각된다. 半袖는 宋代에 裙과 가지런해질 정도로 길어지고 소매는 衫보다는 짧으나 大袖襟子가 되며, 明代의 것은 앞자락과 뒷자락이 五寸정도 차이가 생기는 길이가 긴 長袖對襟의 襟子가 된다. 이에 襟當은 朝鮮時代 中國으로 부터 賜與된 官服중 옷자락이 4개인 袍의 形態를 지닌 宮中服(法服=襟子)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 3) 高麗時代

高麗 軍兵은 갑옷 위에 紫衣, 青衣, 報祥花紋衣, 紅背子, 紫公服등을 着用하였는데,<sup>44)</sup> 특히 朝會儀衛服으로 綠羅汗衫과 같이 紅背子を 입었으며 法駕仗服으로는 緋羅背子を 紫羅冠과, 紫繡包肚를 綠羅汗衫과 함께 착용한다는 기록이 있다.<sup>45)</sup> 金東

40) 金東旭, 韓國服飾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pp.30~31.

劉頌玉, "高句麗의 服飾構造",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p.59.

41) 金富軾,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記服色條.

42)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2, p.93.

43) 金東旭, "新羅統一期の 服飾", 韓國의 服飾, pp.73~74.

44) 金正子, 前掲書, p.41.

45) 任明美, "介曹와 軍服과 戎服에 관한 연구", 韓國의류학회지3(1), 1979, pp.38~40.

46) 柳喜卿, 前掲書, p.143.

旭은, 包肚는 背子の 일종으로 朝鮮王朝時代의 胸衣對라고 하는 것과 같이 소매가 없는 掛子形의 짧은 것이 아닌가 한다.<sup>47)</sup> 背子와 包肚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수 없으나 다만 機能上으로 差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朝鮮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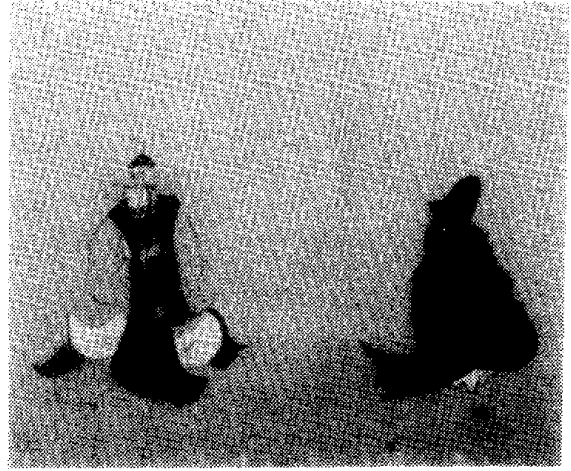
朝鮮時代의 衣服중 無袖對襟衣로는 搭護와 戰服, 快子(掛子), 胡衣(더그레) 및 背子가 있다. 背子は 男女가 着用한 平常服으로 無袖對襟의 短上衣이며 나머지는 王以下 文武官이나 軍隸들이 表衣로 착용한 無袖對襟의 長衣이다.

담호는 朝鮮王朝 實錄에 世宗26年(1444) 明으로부터 袞龍袍의 裏衣로 처음 賜與 받았다.<sup>48)</sup> 그러나 芝峰類說에 의하면 「靜菴 趙光祖가 말하기를 “世宗祖에는 한때 士大夫의 服이 모두 黃色을 崇尚하였는데 許稠는 灰色담호 입기를 즐거하였다”<sup>49)</sup> 함을 볼때, 明으로부터 賜與받기 以前에도 諸臣들이 즐겨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後代의 歷代王들이 諸臣들에게 내린 下賜品중 圓領, 帖裏와 함께 담호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喪禮時 陣襲衣의 皮體나 脯襲用으로 사용되었고<sup>50)</sup> 1900년 4월 勅令第15號로 文官大禮服制式이 바뀔때까지 文官의 通常禮服으로 周衣·絲帶와 함께 通用되었다.<sup>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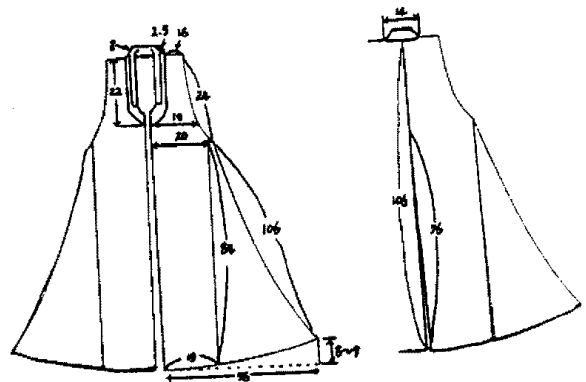
戰服制度는 옛날의 半臂衣이며 綽子 또는 搭護라고도 한다.<sup>52)</sup> 英祖大王 승하시의 喪禮 記錄<sup>53)</sup>을 보면 담호와 戰服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된것 같으나 國末의 담호와 戰服制度에 따른 論議<sup>54)</sup>를 살펴 보면 같은 의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담호는 朝鮮初期때 부터 王以下 文官들이 着用하여왔으며 戰服은 壬辰倭亂 당시 王以下 모든 臣下가 戎服으로 官服을 대신하게 되는 등, 모든 制度가 紊亂하게 되자 文官에게 널리 착용되던 담호가 軍服으로 文武官 및 兵卒들도 입게되어 생겨난

衣服名이라 생각된다. 다만 1639년 이후의 朝鮮通信史服裝(도15)과 후기유물<sup>55)</sup>(도16)들을 비교하여 보면, 후 담호의 양어깨폭이 전복의 것보다 넓은 것이 아니었나 한다.



<도 15> 通信使服裝圖(朝鮮時代通信使)



<도 16> 朴信龍담호(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p.385)

正祖大王의 승하시에 사용된 의복의 品目を 보면 戰服의 사용 例는 없고 搭護와 함께 快子が 보이며, 純祖大王의 승하시 기록에는 快子만 사용되

47) 世宗實錄, 卷百三, 十六年 三月條: 青暗花담호二點 青素담호一件.

48) 李粹光, 芝峰類說, 卷十九, 用部, 衣服, p.618.

49) 李鳳淑, “담호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碩士學位請求論文, 1983, pp. VIII, 8.

50) 高宗實錄, 光武四年 四月條.

51) 增補文獻備考, 卷80, 禮考27, 章服2.

52) 金人淑, “朝鮮王朝說의 小敎, 大敎, 竝梓宮衣對에 대한 研究”. 服飾五號, 1981, pp.221~216.

53) 高宗實錄 二十一年 五月條, 六月條.

54) 朴信龍(1575~1627)의 담호(도16참조) 遺衣閣所藏, 金德遠(1634~1704)의 담호 金在僑所藏, 李氏戰服(1980) 朴京子教授所藏, 大院君戰복\3 梨大家政大所藏.



있고<sup>55)</sup> 高宗皇帝와 동궁마마(純宗) 그리고 英親王의 衣對發起와 衣服發起에 「주의」위에 쾌스가 착용되었음이 고찰되었다.<sup>56)</sup> 그러므로 純祖以後 宮中에서는 搭護, 戰服, 快子が 같은 衣服인 것으로 通稱된듯 하나, 朝鮮常識에 의하면 「後世에 와서 答호를 快子라 하여 下級軍屬 및 奴隸의 制服이 되어 버렸다」<sup>57)</sup>하고 「半臂라 하는 것하는 것은 지금의 掛子와 비슷하다. 다만 掛子の 兩裾가 직수한 것이 다르다」<sup>58)</sup>고한 閑靜當集의 記錄을 볼때, 快子(掛子)<sup>59)</sup>는 半臂 즉, 朝鮮時代 答호, 戰服에 있는 무가 없는 형태로 바뀌서 下級子의 軍服用이 된 것 같다(이때는 특히 모시(苧布)와 목면을 사용하였다).<sup>60)</sup> 또한 掛子は 각종 進饌儀軌의 劍器舞와 舞山香의 舞服으로도 사용되었다.<sup>61)</sup>(도17)

快子是 戰服의 形態를 쫓아 생겨났으나, 그 形態에 있어서는 宮中·官吏들의 것과 軍服·舞服

### 子掛靑雅



<도 17> 雅靑掛子(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p.393)

의 것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宮中과 官吏들의 快子(搭護, 戰服과 같이)는 無袖對襟의 무가 있는 네자락의 의복인데 반해, 軍服과 舞服의 快子は 무가 없는 점이 다르다고 본다. 그러므로 군복, 무복의 쾌자가 궁중의 것에 비해 옆트임 길이가 더 긴 것이 아닌가 한다.

號衣(더그레)는 朝鮮常識에 「答호 밑에 더그레라 註하였고, 朝鮮語辭典에는 더그레는 號衣의 俗稱이요, 號衣는 軍人, 官隸등의 所屬을 表示하는 上衣라고 하였다」<sup>62)</sup> 이 號衣에 관한 사용예는 萬機要覽 軍政編二, 三에 快子和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方位에 色을 따라 달리 사용하였다.<sup>63)</sup> 柳喜卿은 「號衣는 快子の 일종인 것이며, 各榮門의 軍士, 馬上才軍, 司諫院, 葛道, 義禁付, 羅將의 것은 짧은 소매가 있다」<sup>64)</sup>하고, 石宙善은 「黑衣를 일명 더그레라 하고 官이나 班家에서 부리는 奴僕이 입은 흑색무명 세자락옷이다」<sup>65)</sup>라고 한다. 그러므로 號衣는 軍服用 快子の 일종이나 快子와는 달리 下級軍士나 官奴들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뒤트임을 없앤 세자락의 의복으로 구성하고, 그들의 所屬을 標識하기 위해 配置의 方位에 따라 色을 달리 하였다고 생각된다.

搭護, 戰服, 快子, 號衣(더그레)는 無袖對襟의 形態를 지닌 것이나 着用者의 身分에 따라 달리 불리워 지면서 形態에 조금의 變化가 있었음이 고찰되었다.

朝鮮初期의 背子는 「裙과 나란하고 맛갓이며 옆이 트이고 圓袂이며, 혹은 半臂 혹은 無袖」<sup>66)</sup>인데 반해 朝鮮後期에는, 閑靜當集에 「大袖裙儒란 것은

55) 註 53참조.

56) 藏書閣李王室古書 發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衣對發起(王과 東宮의 衣類)를 말한다), 衣服發起(王과 東宮以外의 王族의 衣類를 말한다).

57) 崔南善, 朝鮮常識, 第4. 軍服條.

58) 宋文欽, 閑靜堂集, 「其半臂者 與今之掛子略同 擔掛子兩爲異…」.

59) 孫敬子, 金英淑(共著),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篇Ⅲ, (서울: 敎文社), 1982, p.401, 「鄭약용, 雅言覺非에 掛子를 快子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음이 잘못 옮겨진 것이다. 중국음인 쾌즈(快子)에서 만들어졌다」.

60) 徐榮輔, 萬機要覽, 軍政編二 訓練都監 軍器條, 軍政編三 御營廳 軍器條.

61) 李柱媛, 「李朝後期 宮中女舞服에 관한 研究—純祖 이후를 중심으로—」, 服飾六號, 1982, p.98.

62) 崔南善, 前揭書, 風俗篇,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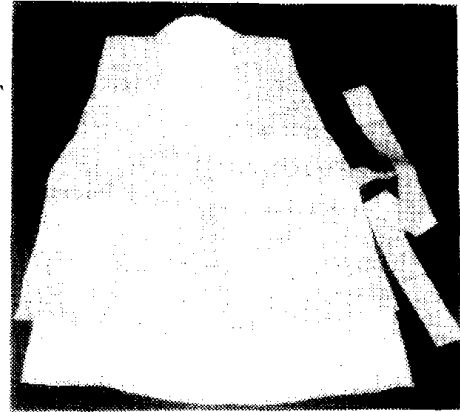
63) 徐榮輔, 前揭書, 軍政編三 訓練都監.

64) 柳喜卿, 前揭書, p.342.

65)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78, p.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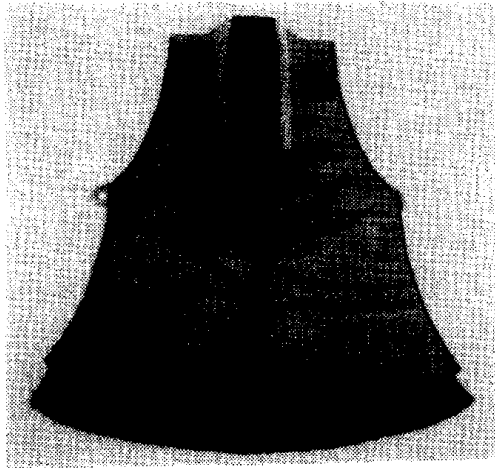
66) 四禮便覽; 「背子用色袖或紺爲之長與裙齊對襟開方圓袂或半臂或無袖」

儒를 입고 그 위에 裙을 加服하는 것으로, 여기에 大袖를 加服하고 혹은 背子를 大袖위에 걸친다. 이 大袖에 加服하는 背子<sup>67)</sup>는 반드시 半臂制이다... 半臂라 하는 것은 지금의 掛子와 비슷하다. 단 掛子の 兩裾가 直垂한 것과 다르다. 그 半臂의 짧은 것은 지금의 背子이다<sup>68)</sup>의 기록을 볼때, 無袖對襟의 인것은 初期의 形態와 같으나 길이가 짧아졌음을 알수 있다. 英祖의 陞下時의 記錄과 朝鮮末期의 藏書閣李王室古文書중의 衣對發起와 衣服發起의 기록에도 背子の 사용 기록이 보이며<sup>69)</sup> 高宗의 遺品으로도 背子(도18)가 남아 있다. 高宗背子<sup>70)</sup>는 高麗大學에 所藏중인 <도19>의 背子와 朴京子教授의 個人所藏品인 <도20>의 背子와 같이 無袖對襟의 양옆에 트임이 있는 것으로 그 길이는 엉덩이 정도로 앞과 뒷자락의 길이에 차이가 있다.



<도 20> 背子(朴京子教授個人所藏)

하지만 高宗의 背子에는 두背子와는 달리 양옆에 끈이 달려 있지 않다. 이러한 背子를 착용한 庶民의 모습은 檀園의 安陵新迎 雙轎부분의 方子(도21)와 惠園의 雙六三昧의 土大夫(도22), 路上拓本の 土大夫(도23), 年小路靑의 男子모습(도24)에서 고찰되었다. 金喜謙의 石泉閒遊의 土大夫간 착용한 背子(도25)는 앞의 背子와는 달리 옆트임이 없고, 金奎植(1887-1950, 도26)이 입고 있는 背子<sup>71)</sup>는 앞에 여밈끈이 달려있다. 1930년대의 遺物인 <도27>의 背子<sup>72)</sup>는 앞뒤의 길이차가 없고 양옆은 트여있으나 두개의 끈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도 18> 高宗背子(石宙善, 衣, p.25)



<도 19> 背子(高麗大學校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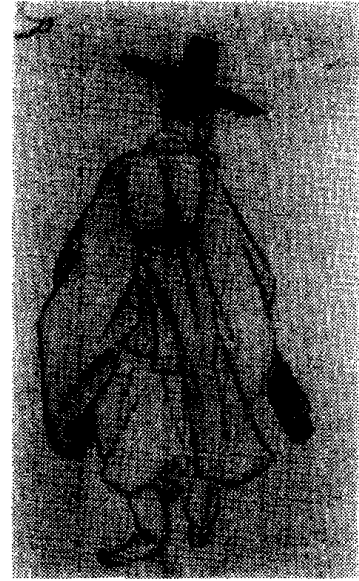
<도 21> 檀園 安陵新迎의 雙轎部分(韓國의 美 20)

67) 宋文欽, 前掲書.

68) 註) 56 참조.



<도 22> 惠園의 雙六三昧(韓國服飾圖鑑Ⅲ, p.92)



<도 23> 惠園의 路上托金(惠園傳神帖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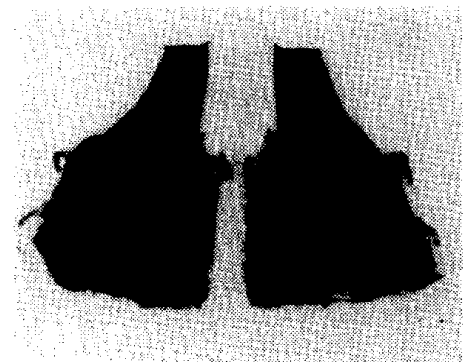
<도 24> 惠園의 年小踏青(韓國의 美 19)



<도 26> 金奎植의 少年 시절(조풍연, 사진으로 보는 朝鮮 時代(속)-생활과 풍속-, 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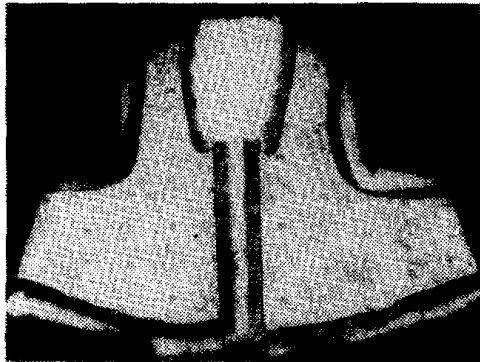


<도 25> 金喜謙의 石泉閒遊(韓國의 美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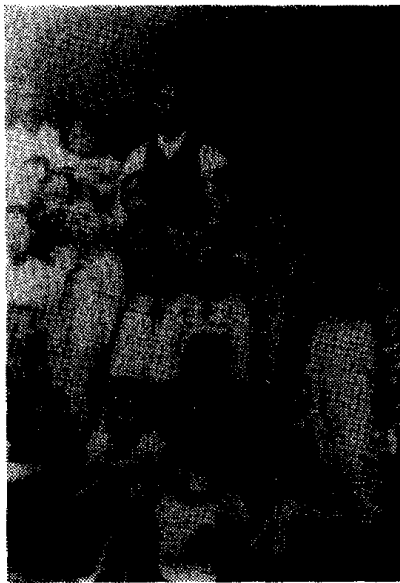


<도 27> 탈背子(朴京子教授 所藏)

있으며 앞의 두 끈으로 여미게 하고 안은 모피로 되어있다. 이와달리 <도28>의 遺物은 <도29>의 1920년대의 妓生學校 學生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이 양옆이 막혔으며 여밈장식도 없고 길어도 전보다는 짧아졌다. 이러한 형태를 지니는 1928-1940년대의 유물이 石宙善博物館에 6점이 所藏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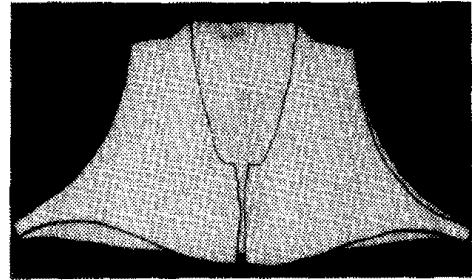
<도 28> 양은읍氏 背子(朴京子教授 所藏)



<도 29> 어느 기생학교의 생도들(조풍연,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속)-생활과 풍속-, p.175)

옆이 막히고 여밈장식이 없어진 점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옆이 막힌 배자가 이복에서 노인들에 의해서 많이 이용

된 점으로 보아 防寒이라는 機能相의 目的이 強化되었다고 보는 점과, 둘째로는 여름에도 背子(도 30)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服裝相의 均衡美를 위해 背子의 길이도 짧아졌고 이로 말미암아 여밈장식도 불필요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도 30> 여름용 背子(高麗大學校博物館 所藏)

본인은 우리의 固有衣服에도 存在하였을 無袖 對襟衣가 背子일 것으로 보았으며, 背子의 基本形을 王宇清이 말한 套衫式 半臂와 같은 貫頭衣形에 두었다. 文獻資料에 나타나는 背子의 出現을 統一新羅 興德王 服飾禁制의 半臂와 相當일 것으로 보고 고찰한 결과, 半臂가 男女 모두에 의해 착용되었던 無袖對襟의 背子形이고 相當은 大袖의 袍의 形態를 지니는 朝鮮時代 宮中 法服(褙子)임이 考察되었다. 이에 半臂의 形態變化와 衣服이 있어 比較하여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關係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唐代의 半臂와 統一新羅時代의 半臂와의 關係: 당시의 半臂는 中國, 日本에서도 男女에 의해 널리 착용된 의복이고, 禁制當詩 이미 統一新羅가 唐의 服飾 影響圈에 있었던 점과 三國時代의 壁畫에서 考察된 半臂와 禁制內容의 半臂도 男女에 의해 着用된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唐代의 半臂와 유사 하다고 보나 그 길이에 있어서는 日本의 吳女背子와의 關係를 생각해 볼때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2. 이러한 半臂가 高麗時代에는 軍服의 包肚와 背子로 이어진다. 中國의 경우 宋代에 소매없는

<표 2> 우리나라의 背子 名稱 分化

時 代	三 國 時 代	統一新羅時代	高麗時代	朝 鮮 時 代
衣 服 名		半臂	包肚, 背子	搭護, 戰服, 快子(掛子), 號衣(더그레), 背子

형태의 背子라는 衣服名이 나타나고 있는 綽子라고도 하는데, 綽子は 後代의 答호등의 軍服이 된다. 그러므로 前代의 半臂의 形態가 中國의 경우처럼 軍服에 影響을 주어 包肚 또는 背子(이는 宋代의 소매없는 背子の 衣服名을 따른 것 같다.)가 되었으며,

3. 朝鮮時代 男性 全用의 無袖對襟衣인 答호의 경우, 明나라에서 賜與 받기 以前부터 이미 文官 人들에 의해서 입혀져 왔고, 그 着用範圍의 擴大는 歷代王들이 答호를 紳士들에게 下賜함으로서 漸進되었다고 보며,

4. 朝鮮時代 末葉에 나타나는 快子의 경우, 答호의 形態를 쫓아 생겨났으나 그 衣服名은 淸나라의 褂에서 影響을 받아 생겨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5. 統一新羅時代의 半臂를 繼承한 背子は 朝鮮初期 女子喪服과 朝鮮後期의 男女共用的 平常服으로 착용되었는데, 前者는 宋代의 소매없는 背子와 明代의 比甲처럼 길이가 긴 의복으로 생각되며 後者는 국속화된 의복으로 길이가 짧아졌다고 본다. 그러나 앞뒤자락의 길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明代 長袖襟子의 影響인 듯하고 안에 모피를 넣는 衣服構成法은 淸代 端罩와의 關係를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中國과의 關係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으로 토착화된 無袖對襟衣가 보이는데 그것은 戰服, 軍服과 舞服의 褂子, 號衣(더그레), 背子이다.

#### IV. 結 果

背子の 樣式에는 無袖對襟의 短上衣와 大袖長衣인 襟子가 있는데, 襟子は 統一新羅의 襟當을 이은 朝鮮時代의 宮中服이었다. 本考에서 살펴본 無袖對襟의 短上衣인 背子の 基本形態와 變遷過程은 다음과 같다.

1. 背子の 基本形은 貫頭衣形에서 前開形의 變化한 것이며,

2. 이것의 가장 오래된 衣服名은 中國의 경우 漢나라때의 繡鬚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統一新羅時代의 半臂이다. 이는 唐代의 半臂처럼 男女가 共通으로 着用하였음이 三國時代의 壁畫와 文獻資料에 의해서 考察되었고 唐代의 것과 類似하다고 본다.

3. 無袖對襟衣라는 意味를 지니는 背子の 衣服名은 宋代에 나타나는데, 背子の 異名인 綽子は 後代의 搭護, 背心, 背搭, 馬甲, 坎肩, 褂라고 불리워지면서 그 길이에 다양성을 보인다. 우리의 경우는 背子라는 衣服名은 高麗時代 文獻에 나타나는데, 이는 軍服으로 착용된 것이다.

4. 朝鮮時代의 無袖對襟衣로는 搭護, 戰服, 快子, 號衣(더그레) 및 背子가 있다. 搭護, 戰服, 快子, 號衣(더그레)는 기본적으로 無袖對襟의 長衣의 形態를 지니나 着用身分에 따라 그 形態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즉, 王과 管理의 搭護, 戰服, 快子是 無袖對襟의 長衣로 앞트임과 뒤트임이 있고 부가 있는 네자락의 形態를 지니는 것은 공통적인 요소이나 答호의 양어깨넓이는 전복과 쾌자의 것에 비해 넓다고 본다. 그리고 軍服과 舞服의 快子是 부가 없으며 앞트임 길이가 더 길다고 본다.

下級軍士나 官奴들의 所屬標示를 위해 配置에 따른 方位色을 사용한 號衣(더그레)는 뒤트임이 없는 세자락의 의복형태를 지녔다.

朝鮮初期의 背子は 無袖對襟의 長衣였으나 朝鮮後期에 가서 國屬化되어 길이가 짧아졌다고 보며, 앞뒤의 길이에 차가 나는 것은 明代의 大袖長衣의 襟子의 影響인 듯하고 동정이 날리기 시작할짐과 양앞트임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주는 끈과 앞여밌음이 있던 것이 길이가 거드랑이 정도로 짧아지면서 앞트임과 앞여밌음이 없어진 짐은 우리의 衣生活 風習에 土着化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樣式의 變遷現像으로 보아진다.

#### 參 考 文 獻

- 三國史記
- 高麗史
- 世宗實錄
- 中宗實錄
- 光海君實錄
- 高宗實錄
- 增補文獻備考
- 閑靜當集
- 芝峰類說
-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 一朝閣), 1986.

- 金東旭, “신라통일기(新羅統一期)의 복식(服飾)”, 韓國의 服飾, (서울: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金人淑, “朝鮮王朝 王의 小斂, 大斂, 실粹宮衣對에 대한 연구”, 服飾五號, 1981.
- 金正子, “韓國軍服의 變遷研究”, 대한가정학회지24(4), 1986.
- 弓民峯, 李京子, “朝鮮通信史 服飾의 研究”, 服飾七號, 1983.
-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78.
- 孫敬子, 金英淑(共著),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篇Ⅲ, (서울: 教文社), 1982.
-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梨花女子大學 校出版部), 1982.
- 李柱媛, “李朝後期宮中女舞服에 관한 研究—純祖 이후를 중심으로—”, 服飾六號, 1982.
- 任明美, “介曹와 軍服과 戎服에 관한 研究”, 한국의류학회지3(1), 1979.
- 조풍연 해설,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속)—생활과 풍속, (서울: 서문당), 1987.
- 宋中
- 大明集禮
- 大明會典
- 三才圖會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春港分館), 1981.
- 王宇清, 中國服飾圖錄, 世界地理叢書, 中華民國73年.
-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台滿: 中華大典編印會), 中華民國61年.
- 何活天, 中國袍服織繡選萃, 1971.
- 小川安朗, 服飾變遷의 原則,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五六年.
- 松島煩正, “正倉院의 衣服에 について”, 書陵部紀要第24號拔刷.
- 町野とく 著, 正倉院枝樂裝束의 復原的 研究, (日本: 奈良明新社), 昭和54年.
- 原田淑人 著, 唐代의 服飾, (東京: 東洋文庫論叢 第51), 1970.